

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2019년 7월 12 일 메시지

미국과 캐나다 사목 방문 여정 안에 있는 오푸스데이 단장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놀은 성인들의 통공이 우리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

2019-7-13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
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!

로마를 떠나고 요즘 며칠 동안, 저는
성인들의 통공의 경이로움에 우리 주
님께 특히 감사했습니다. 믿음의 확
신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
으로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서로
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

어딘가를 도착할 때 우리 모두는 언
제나 서로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고
동일하게 그 장소를 떠날 때에도 일
어납니다. 잘 있으라는 헤어짐의 인
사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
또 다른 방법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
우리의 집에 있고 항상 일을 수행하
며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장소에 구매
받지 않고 교회를 섬깁니다.

또한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, 우리를
친밀하게 일치시킨 현실로부터 힘을
받습니다.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
리스도와의 결합의 결과입니다.

저는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온두라스
영사관에서 쓴 글을 회상합니다. 그
당시에 성인께서는 어딘가를 가는 것
이 너무 힘드셨을 때입니다. “저는 언
제나 물리적으로 현재해 있는 장소에
서 몇 백 마일 떨어져있습니
다.” (1937년 4월 30일) 성인께서는
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
에게도 가까이 일치되어 계셨다는 것
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
것입니다.

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내는 여정
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와 즐거움의 후
원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
습니다. 저 역시 여러분 모두와 동행
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특히 미사 성
제 안에서 날마다 서로 가까이에 있
습니다.

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뉴욕, 2019년 7월12일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opuseudei-danjang-
monsinyolyi-2019nyeon-7weol-12il/
\(2026-1-31\)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2019nyeon-7weol-12il/)